

40년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우정일식 흥혜정 사장님

아트레인
ARTrain



아트레인 기부자를 만나다. #06

40년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우정일식 흥혜정 사장님

흥혜정 일식집은 2015년 10월 10일 '우정일식'으로 개업했습니다. 3.0평 남짓한 가게에 1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며, 40년째 '우정일식'의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0일 개업한 흥혜정 일식집은...



Q. 흥혜정 일식집은 언제 개업했나요?

A. 흥혜정 일식집은 1976년 10월, 우정일식으로 개업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정일식 일식집은 일식집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5년 10월 10일 '우정일식'으로 개업했습니다. 흥혜정 일식집은 40년째 '우정일식'의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흥혜정 일식집은...

Q. 흥혜정 일식집은 어떤 일식집인가요?

A. 70년째 일식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흥혜정 일식집은 일식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Q.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A.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Q.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A.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Q. 1980~90년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A.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Q. 이 식당의 외관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점이 인상 깊었습니까?

A. 식당의 외관이 매우 현대적이고 깔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두운 회색의 금속 질감의 외벽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입구와 건물 외벽에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佑汀' 로고와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세심하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Q. 식당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어떤 점이 인상 깊었습니까?

A. 식당의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끼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가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 깊었습니까? 식당의 분위기와 서비스의 질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부문화의 새로운 길 아트레인
개항의 철길 위에 아트레인이 달려갑니다.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 열차'를 운영하며,
'아트레인 열차'를 운영하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 열차'를 운영하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 열차'를 운영하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아트레인 열차 문의 : 032-455-7114,
artrain@ifac.or.kr

아트레인 : 2017년 1월 11일부터